

# 김알지신화와 영남지방의 민간신앙 (金闕智神話와 嶺南地方의 民間信仰)

張籌根

- |                |              |
|----------------|--------------|
| 一. 序 言         | 四. 金闕智神話의 解釋 |
| 二. 部落祭의 實際     | 五. 結 言       |
| 三. 始祖단지 信仰의 實際 |              |

## 一. 서언(序言)

원칙적(原則的)으로 신(神)이란 비실재적(非實在的) 존재(存在)이며, 신화(神話)란 비실재적(非實在的)인 설화(說話)이다. 그렇다고 신(神)이나 신화(神話)가 물론(勿論) 황당무계(荒唐無稽)한 조작(造作)일 수는 없으며 거기에는 원초집단생활(原初集團生活)의 모습이 반영(反映)된다. 그 중(中)에서도 신(神) 또는 신화(神話)는 다분(多分)히 종교적(宗敎的)인 존재(存在)이기 때문에 종교적(宗敎的)인 의례(儀禮)와 깊은 관련(關聯)을 갖는다.

여기 신화(神話) 연구(研究)에 민간신앙조사(民間信仰調查)의 필요성(必要性)이 제기(提起)된다고 해야겠거니와, 도대체(都大體) 민속문화(民俗文化) 전반(全般)이 끈질긴 원초성(原初性) 보수성(保守性)을 지니고 잔존(殘存)하는 가운데에서도 특(特)히 신앙면(信仰面)은 다른 물질면(物質面)과 달라서 가변성(可變性)이 희박(稀薄)하다. 필자(筆者)는 영남지역(嶺南地域) 일부(一部)의 민속자료(民俗資料)를 조사(調查) 수집(蒐集)하는 기회(機會)를 가졌었고 거기서 얻어진 민간신앙(民間信仰) 자료(資料)가 신라(新羅) 시조신화(始祖神話)들과 합치(合致)되는 요소(要素)가 많음을 생각해 온 바가 있었다. 지금(至今) 여기서는 고문헌신화(古文獻神話)와 민간신앙(民間信仰)의 합치(合致)되는 요소(要素)들을 들어서 대비(對比)를 하여 이들 시조신화(始祖神話)들에 대(對)한 민속적(民俗的)인 고찰(考察)을 시도(試圖)해 보고자 한다.

우리의 경우 더구나 신라(新羅)는 분묘(墳墓)나 기명(器皿)에 회화(繪畫)가 태무(殆無)하여 신화연구(神話研究)에는 민속학적(民俗學的) 고찰(考察)이 고고학적(考古學的) 연구(研究)보다 더 많은 성과(成果)를 가져온다.

우리의 손으로 이루어진 우리 신화(神話)의 연구(研究)는 극(極)히 부진(不振)한 편(便)이어서 문헌상(文獻上)에도 얼마 안되는 몇몇 시조신화(始祖神話)들에 대(對)한 본격적(本格的)인 연구(研究)가 불과(不過) 몇편(篇)밖에 없다. 아직 해석신화학(解釋神話學)의 단계(段階)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에 여기 그 일조(一助)로서 새로 얻어진 부락

제(部落祭)의 자료(資料)를 가지고 김알지신화(金閼智神話)를 중심(中心)하여 그 정체(正體), 양상(樣相)들을 우선(于先) 생각이 미치고 가능(可能)한데까지 파악(把握)해 보 고자 한다.

## 二. 부락제(部落祭)의 실제(實際)

1. 경북(慶北) 영일군(迎日郡) 구룡포읍(九龍浦邑) 대포리(大浦里)의 예(例)

① 제의명칭(祭儀名稱) - 동제(洞祭)

② 일시(日時) - 음시월택일(陰十月擇一). 자정(子正)(첫 계명성(鷄鳴聲)과 동시(同時))

③ 제신(祭神) - 하(河), 최(崔), 양(梁) 삼성(三姓)의 신위(神位)

각기(各己) 「골매이 하씨(河氏)할배」, 「최씨(崔氏)할배」, 「양씨(梁氏)할배」 들로 불린다. 영남방언(嶺南方言)에서 이 경우 「할배」의 어의(語意)는 「조부(祖父)」라는 뜻이 아니라 「조상(祖上)」이라는 뜻이다. 즉(卽) 각자(各自) 성씨(姓氏)의 이곳에서의 시조(始祖)라는 뜻으로 사용(使用)하는 단어(單語)이다.

여기 이 「골매」이라는 어휘(語彙)가 이 글에서 주요핵심(主要核心)의 하나를 이루게 되겠기 자료(資料)를 제공(提供)해 준 노인(老人)의 말씀을 더 소개(紹介)하면 「골매이」는 자기(自己) 성씨(姓氏)의 이곳에서의 시조신(始祖神)인 동시(同時)에 자기(自己) 부락(部落)의 창건신(創建神)이요, 또한 부락(部落)의 수호신(守護神)이라는 신앙심(信仰心意)이었다. 하씨(河氏) 조상(祖上)으로 말하면 임난시(壬亂時)(또는 세조찬위시(世祖篡位時)) 이곳에 피난(避難)와서 낙향일대조(落鄉一代組)가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최씨측(崔氏側)에서는 「최씨(崔氏)할배」가 먼저 여기 정착(定着)했다고 우겨서 때로는 하최양(河崔梁)의 순위(順位)가 최하양(崔河梁)으로 고집(固執)되기도 한다는 것이 마치 제주도(濟州道)의 삼성시조신화(三姓始祖神話)와 그 제의(祭儀)의 경우의 고양부(高梁夫)니 양고부(梁高夫)니 하는 일과 같았다.

그리고 제당(祭堂)의 신목(神木)에 내재(內在)하는 「골매이」는 이 신목(神木)을 처음 심은 분들로 여기고, 동시(同時)에 이곳에서의 삼성(三姓)의 시조(始祖)로 여기고 있다고 한다.

④ 제관(祭官) - 하최양씨중(河崔梁氏中) 사십세이상(四十歲以上)의 부정(不淨)타지 않은 자(者) 일명(一名)을 선정(選定)한다.

하(河) 최(崔) 양(梁) 삼성(三姓)의 자손택(子孫宅)들을 「골매이집」이라 부르거니와 그 중(中)에서 선정(選定)된 제관(祭官)은 칠일간(七日間) 근신(謹慎)하고 목욕재계(沐浴齋戒)한다.

⑤ 제당(祭堂) - 명칭(名稱)은 동제당(洞祭堂)

대포리(大浦里)는 현재(現在) 일(一), 이(二), 삼동(三洞)으로 구분(區分)되어 있으나 제당(祭堂)은 일동(一洞) 이동(二洞)에만 있고 일동(一洞)의 경우는 당사(堂祠)와 신목(神木)이 같이 있고, 이동(二洞)은 신목(神木)밑에 돌 제단(祭壇)만이 간소(簡素)하게 마련되어 있으며, 이 신목(神木)들은 「당수(堂樹)나무」로 불리며 외경(畏敬)의 대상(對象)이 되고 있다.

⑥ 제수(祭需) - 건(乾)괘어, 삼과실(三果實)(대추, 밤, 감) 백반(白飯), 술

⑦ 제차(祭次) - 일동(一洞) 당사(堂祠)에서 계명(鷄鳴)(자정(子正)) 전(前)에 제사(祭祀)를 지내고 대기(待期)하고 있다가 첫 계명성(鷄鳴聲)과 동시(同時)(자정(子正))에 이동(二洞) 당사(堂祠) 앞에서 지낸다.

※ 참고(參考)로 이 부락(部落)의 성씨별(姓氏別) 호수(戶數)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김씨(金氏) 삼칠(三七), 이씨(李氏) 십칠(十七), 서씨(徐氏) 십일(十一), 박씨(朴氏) 구(九), 골맥이집들인 하씨(河氏) 삼(三), 최씨(崔氏) 삼(三), 양씨(梁氏) 이(二), 그외(外)에 천림윤장황(千林尹張黃), 손(孫), 정(鄭), 송(宋), 강(姜), 전(全), 지(池), 배(裴), 오(吳), 권(權), 감(甘), 백(白), 허(許), 고(高), 신(辛), 남(南), 홍(洪), 조(趙), 우(禹), 강(康), 씨(氏)들이 각각(各各) 일호(一戶)에서 삼호(三戶)씩, 개중(個中)에 권씨(權氏) 오(五), 감씨(甘氏) 육(六)으로 많은 숫자(數字)도 있었는데 정작 골맥이 집 호수(戶數)는 오히려 많지 못한 편이었다.

(이상(以上) 대포리(大浦里) 이동거주(二洞居住) 하중청옹담(河中淸翁談), 1963년(年) 8월(月) 조사(調查), 당시(當時) 60세(歲))

2. 경북(慶北) 영일군(迎日郡) 구룡포읍(九龍浦邑) 구만리(九萬里) 일동(一洞)의 예(例)

- ① 제의명칭(祭儀名稱) - 동제(洞祭)
- ② 일시(日時) - 음(陰)11월중(月中) 택일(擇日)
- ③ 제신(祭神) - 골목이 이씨(李氏)할마시와 김씨(金氏)할마시:발음(發音)이 「골목이」 「골맥이」 들로 일정(一定)치 않았는데 들은 발음(發音)대로 적어가기로 하겠다.
- ④ 제관(祭官) - 노인층(老人層)에서 부정(不淨)타지 않은 자(者) 일명(一名) 선정(選定). 그는 해수(海水)로 목욕재계(沐浴齋戒)한다고 했다.



구룡포읍구만리일동(九龍浦邑九萬里一洞)의 골목이

⑤ 제당(祭堂) - 이씨(李氏)할마시가 좌정(坐定)한 곳은 「남당(男堂)」 김씨(金氏)할마씨가 좌정(坐定)한 곳은 「여당(女堂)」, 공(共)히 송목(松木)의 「당수(堂樹)나무」인데 「여당(女堂)」은 해변(海邊)에, 송목(松木)만 있고 「남당(男堂)」은 송목(松木) 「당수(堂樹)나무」 옆에 허물어진 당사(堂祠)가 있었다. 이 당사(堂祠)는 수년전(數年前) 사라호(號) 태풍에 무너졌으나 재건능력(再建能力)이야 있지만 두려워서 손을 못 댄다고 했다. 40여년(餘年) 전(前)에 그 당(堂)을 지었을 때에 탈이 생겨서 인명피해(人命

被害)가 많았었던 때문이라고 한다.

⑥ 제수(祭需) - 어물(魚物)(문어, 방어, 오징어) 과일(果實), 백반(白飯)

이 제물(祭物)을 구입(購入)할 때에 장을 보러 간 사람은 일절(一切) 에누리 않고 한눈 안팔고, 함구(緘口)를 해서 부정(不淨)을 막는다고 한다.

⑦ 제차(祭次) - 제관(祭官) 일명(一名), 집꾼 일명(一名) 외(外) 일절(一切) 접근(接近)을 금지(禁止)하고, 한밤중 한시경(時頃)에 제당(祭堂)에 간다. 끝내고 내려오면 동내(洞內) 유지(有志)들이 회동(會同)하고 있다가 음복(飲福)한다. 제일(祭日) 칠일전(七日前)부터는 동내(洞內) 여산부(女産婦)는 출타(出他)하고, 음주(飲酒)나 소란(騷亂)을 피우는 일을 금(禁)하고 근신(謹慎)을 하는데 이 신성기간(神聖期間)은 제(祭)가 끝나면 해금(解禁)된다.

### 3. 경북(慶北) 영일군(迎日郡) 구룡포읍(九龍浦邑) 구만리이동(九萬里二洞)의 예(例)

구만리(九萬里) 일동(一洞) 이동(二洞)의 실정(實情)은 구만리(九萬里) 이동(二洞)의 동사(洞舍)에서 수명(數名)의 노인(老人)들, 청년(靑年)들에게 같이 청취(聽取)했으나 다른 상황(狀況)은 다 같고 제신(祭神)은 일동(一洞)의 경우는 골목이 「망씨할마씨」 한분이고 이분이 처음 이 동내(洞內)를 개관(開判)한 할마씨라고 했다. 그리고 일동(一洞)에 그 신목(神木)과 묘(墓)가 있다기에 찾아 보았더니 4·5백(百)m 떨어져서 신목(神木)이 산(山) 밑 밭가운데 보이고 이쪽 고구마 밭속에 저평면(低平面) 면적(面積)은 일반(一般) 묘(墓)와 같으나 높이는 50cm정도(程度) 밖에 못되는 묘(墓)가 하나 있었다. 동민(洞民)들은 이 골목이할마씨가 실제인물(實在人物)인 것으로 여기며 수년전(數年前)에 그 자손(子孫)들이 무덤을 살피러 왔었다고 강조(強調)했다.

(이상(以上) 구만리이동동사(九萬里二洞洞舍)에서 7, 8명(名)의 노인(老人), 청년(靑年)들 제공(提供) 1963년(年) 8월(月))

### 4. 경북(慶北) 안동군(安東郡) 풍천면(豐川面) 하회동(河回洞)의 예(例)

① 제명(祭名) - 동제(洞祭)

② 일시(日時) - 정월(正月) 15일(日)과 4월(月) 8일(日)

③ 제당(祭堂) - 삼개(三個) 있는데 첫째는 부락(部落) 입구(入口)에 있는 산(山)위의 「상당(上堂)」이고, 둘째는 산(山) 밑에 있는 「하당(下堂)」(또는 국시당(堂))이고 셋째는 부락(部落) 안에 있는 「삼신당(堂)」이다. 「상당(上堂)」 「하당(下堂)」은 초가(草家)지붕의 당사(堂祠)가 있고, 삼신당(堂)은 거목(巨木) 한그루 뿐이고 서낭대는 상당(上堂)에 모셔지고 있다. 그리고 이밖에도 부락입구(部落入口)의 고개와 산(山)에 신목(神木) 뿐인 서낭당이 합(合) 이(二) 개가 있어 도합(都合)은 오(五)개가 되는 셈이다.

④ 제신(祭神) - 상당(上堂)은 여신(女神) 「김씨(金氏)할매」, 이 신(神)은 「월래」(다릿골)가 친정인데, 일반(一般) 출가(出稼)했었고, 옥류동(洞)(옹기동)에 왔다가 다시 상당(上堂)으로 옮겨 좌정(坐定)했다고 한다. 「부락제(部落祭)」(조선(朝鮮)의 향토신기(鄕土神記) 제일부(第一部) 총독부(總督府) 조사자료(調查資料) 제(第)44집(輯) 소화(昭和) 12년(年) 발행(發行))에는 이 신(神)을 「무진생(戊辰生) 의성오토산(義城五土山) 김씨(金氏)라는 여자(女子)가 15세(歲)에 남편을 사별(死別)한 후(後) 여기 성황신(城隍神)이 되었으며」 「동내(洞內)삼신의 며누리이다. 삼신은 이 부락(部落) 창설당시(創設當時)부터 있는 부락신(部落神)인데 성황임(城隍任)이 온 다음 동신(洞神)의 지위(地位)를

며느리에게 양도(讓渡)했다고 한다」는 등(等)의 기록(記錄)이 보인다.

「하당(下堂)」(국시당(堂)) 당신(堂神)도 성씨(姓氏)는 모르나 여신(女神)이고, 삼신당(堂)의 삼신은 전기(前記)와 같다. 결국 세 신(神)이 다 여신(女神)인 셈이다.

⑤ 제관(祭官) - 지금(至今)은 성씨(姓氏)에 제한(制限)이 없으나 예전에는 유씨(柳氏)는 참여(參與)하지 않고 타성(他姓)이 주동(主動)이 되었다고 한다. 이 때는 산주(山主) 민노인(閔老人)이 노쇠(老衰)로 활동(活動)이 안되는 때여서 유사(有司) 이인(二人)이 정월(正月) 오일(五日)에 선정(選定)되고 삼일전(三日)에 그 집에 금색(禁索)을 하며 이 유사(有司) 이인(二人)이 정월(正月), 사월(四月)의 제의(祭儀)를 다 주재(主宰)한다고 했다.

⑥ 제차(祭次) - 유사(有司) 이인(二人)과 동장(洞長), 무고자(無故者)들 2·30명(名)이 참가(參加)하여 날이 새고부터 상당(上堂), 하당(下堂)의 순서(順序)로 제사(祭祀)를 지내고 하당(下堂)에서 참가자(參加者)들이 다 음복(飲福)을 하고, 삼신당(堂)은 낮에 일동(一同)이 와서 간단히 참배(參拜)를 한다고 했다.

⑦ 기타(其他) - 이곳 가면(假面)은 지금(至今) 국보(國寶)로 지정(指定)되었으나 십년(十年)에 일회(一回) 지냈던 별신(別神)굿놀이는 단절(斷絶)된지 오래다. 산주(山主)도 이제는 다시 선정(選定)될 것 같지 않고, 「골매이」에 대(對)해서도 유씨(柳氏) 종손(宗孫) 유시영씨택(柳時泳氏宅) 식모(食母) 박순이씨(朴順伊氏)(59세(歲))만이 「골매이 낚」이라고는 했다고 하며 이 이가 민속(民俗)의 세부적(細部的) 전승상황(傳承狀況)에는 제일(第一) 자세(仔細)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배판한다」는 말은 있어도 「골매이」란 말은 이 동내(洞內)에서는 못 들었다고 했다. 옛 전승상황(傳承狀況)들이 다 소멸(消滅) 변형(變形)되어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분포(分布)가 여기에서 그치는 것인지 모르겠다. 그래도 부락(部落) 제면(祭面)에서는 워낙 전승(傳承)이 풍부(豐富)했던 부락(部落)이니만큼 더 조사(調查) 연구(研究)할 여지(餘地)와 가치(價値)가 있는 곳이다. 전기(前記) 「부락제(部落祭)」에도 상당(相當) 분량(分量)의 조사기록(調查記錄)이 있으니 그리로 미루고, 여기서는 「신령(神鈴)」에 주목(注目)을 하고 그치기로 한다. 이 방울은 「부락제(部落祭)」에도 성황간(城隍竿)에 달리는데 이것은 근처(近處)의 안동권씨(安東權氏) 부락(部落)에서 모시고 있던 동신(洞神)에게서 얻은 것이라고 한다 했고, 산주(山主) 민노인(閔老人) 며느리는 「김씨(金氏)할매가 처녀(處女)때 하늘에서 떨어진 것을 얻었다고」 했다. 이것이 신체(身體)로 여겨지며 존승(尊崇)되고 있다.

(이상(以上) 유시영씨 내외분(柳時泳氏 內外分), 유명하씨(柳炳夏氏), 동장(洞長), 박순이(朴順伊), 산주민노인(山主閔老人) 며느리 외(外) 제씨제공(諸氏提供), 1963년(年) 8월(月))

그 외(外)에 현(現) 하회동(河回洞) 주거(住居) 신(申)끝봉씨(氏)(65세(歲))에 의(依)하면 자기(自己) 큰집이 같은 풍천면(豐川面) 인금이동(仁今二洞)(다릿골)에 있어서 아는데 다릿골 동제(洞祭)도 정월십오일(正月十五日)이고, 성별(性別) 성씨(姓氏)는 불명(不明)이나 제신(祭神)은 「골매이」라고 했다.

또 이웃 풍천면(豐川面) 광덕리(廣德里)에서는 그곳 신망중학교장(信望中學校長) 유도갑씨(柳道甲氏)(59세(歲))에 의(依)하면 음(陰) 칠월(七月) 제초작업(除草作業) 끝에 농악(農樂)놀이를 하는 「뿃굿」을 할 때에도 그밖에도 동내(洞內)서 쇳소리(유흥(遊興), 음악(音樂))를 낼 때에는 먼저 동제당(洞祭堂)에 가서 치고 오는데 이것을 「골매기 친다」고 한다는 것이었다.

5. 경북(慶北) 영주군(榮州郡) 부석면(浮石面) 소천리(韶川里) 일리(一里) 봉랫골의 예(例)

① 당명(堂名) - 서낭당(堂). 이제 당명(堂名)부터가 달라지거니와 「동제당(洞祭堂)」이라는 명칭(名稱)이나 「골매이」들의 분포권(分布圈)이 이 부근(附近) 어디에서 그어져야 할 것 같다.

금후(今後)의 조사(調査)에 의(依)할 문제(問題)이다.

② 제일(祭日) - 정월십오일(正月十五日)

③ 제관(祭官) - 제관(祭官) 1명(名), 부제관(副祭官) 1명(名), 축관(祝官) 1명(名)

④ 제신(祭神) - 보통(普通), 「골매이 서낭」이라고 하는데 「이씨녀(李氏女)서낭님」이라고 했다.

「골매이」에 강원도식(江原道式)인 「서낭」이란 말이 자꾸 끼어 든다.

⑤ 제차(祭次) - 14일(日) 낮, 소제(掃除), 입춘서(立春書), 도배들을 하고 제관(祭官)이 목욕후(沐浴後) 집합기도(集合祈禱), 자정(子正)에 밥 떡 술로 치성(致誠)하는데 매가 호주(每家戶主)의 생일(生日)을 기입(記入)하고 소지(燒紙)를 올리며 익조(翌朝) 제관(祭官) 집에 음식(飲食)을 갖고 와서 음복(飲福)하고 여러 가지 동내(洞內) 일을 논의(論議)하는 회의(會議)를 한다. 그리고 회의(會議) 끝에 즐다리기, 풍물울리기, 율놀이 등(等)이 성황(盛況)을 이루고 옛날에는 5년(年), 또는 10년(年)만에 보통(普通) 5-6일(日)이 걸리는 별신(別神)굿을 했다고 한다.

⑥ 기타(其他) - 예전에는 이 비용(費用)이 동내공동소유(洞內共同所有) 50마지기 땅의 수확(收穫)으로 충당(充當)되었으나 토지개혁후(土地改革後) 분배(分配)되고 지금은 동내(洞內) 각출(釀出)이라고 했다

(이상(以上) 이정원(李廷元)(70) 김사덕(金思憲)(60) 외(外) 3인(人) 제공(提供))

6. 경북(慶北) 영덕군(盈德郡) 남정면(南亭面) 부흥동(富興洞)의 예(例)

골모기(동제당(洞祭堂)) 동해변(東海邊) 암상(岩上)에 위치(位置). 제신(祭神)은 「한씨(韓氏)터전」 「정씨(鄭氏)·전씨(全氏)골목님」 삼위(三位). 즉 부락(部落) 창설(創設)의 조상숭배(祖上崇拜). 이상(以上)이 사진설명(寫眞說明) 19번(番). 1965년(年) 5월(月) 촬영(撮影)으로 「국어국문학 29호(號)」 소재(所載) 김태곤씨(金泰坤氏)의 「한국신당연구(韓國神堂研究)」 중(中)의 사진(寫眞)과 그 설명(說明)에 보였고, 본문(本文) 속에 「골목이(동제당(洞祭堂)) : 경북일대(慶北一帶)(주(主)로 동해안(東海岸))」이라 보였다.

7. 경남(慶南) 동래군(東萊郡)의 예(例)

「조선(朝鮮)의 향토오락(鄉土娛樂)」(소화(韶和) 16년(年) 총독부발행(總督府發行)) 208면(面) 「별신(別神)」항(項)에 …… 정월십오(正月十五)의 야반(夜半) 제주(祭主)는 혼자서 부락(部落)의 당사(堂祠)(골목이님)에 가서 제(祭)를 지낸다 …… (중략(中略) 일본(日本) 필자직역(筆者直譯)) 이와 같이 경남(慶南) 동래(東萊)에 「골목이」의 분포(分布)가 하나 보였다. 그리고 또 「석존(釋尊), 기우(祈雨), 안택(安宅)」(조선(朝鮮)의 향토신기(鄉土神記) 제이부(第二部) 총독부(總督府) 조사자료(調查資料) 제(第)45집(輯) 소화(韶和)13년(年) 발행(發行)) 192면(面)에 무녀(巫女)의 별신제사(別神祭祀)라 해서  
前の 堂山コラムキー

後の山のコラムキー  
男堂山 女堂山ニム  
……… (以下 省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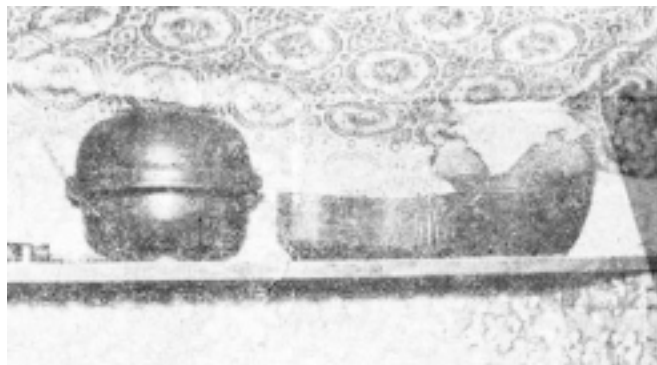
하고 골목이라는 말이 보이고 있다. 그러나 원(原) 요긴(要緊)한 「부락제(部落祭)」 자체(自體)에는 국판(菊版) 639면(面) 전체(全體)를 통(通)해서 「골목이」는 일언반구(一言半句) 보이지 않고 있다.

이상(以上)이 지금(至今) 현재(現在)까지 필자(筆者) 관문하(管聞下)에서 입수(入手)할 수 있었던 골목이 동제신(洞祭神)에 관(關)한 자료(資料)의 전부(全部)이다. 이제 이 골목이의 어의(語意), 기능(機能), 성별(性別) 제의형태(祭儀形態)(일시(日時), 장소(場所), 제차(祭次)(祭次), 신앙심의(信仰心意) 등(等)) 분포(分布) 등(等)에 관(關)한 문제(問題)들이 검토(檢討)되어야 하겠으나 논지(論旨)의 전개순서상(展開順序上) 일단(一段) 김알지신화(金闕智神話)의 문헌자료(文獻資料) 인용후(引用後)로 미루기로 한다. 그것은 이 현재(現在)의 민속자료(民俗資料)가 물론(勿論) 이것 대로도 조사연구(調查研究)가 선행(先行)되어야 하겠으나 이 자료(資料)들이 그 매듭 매듭에서 김알지(金闕智)를 비롯하여 신라시조신화(新羅始祖神話)들과 합치(合致)되는 점(點)이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김알지신화(金闕智神話) 해석(解釋)에 있어서는 하나 더 고려(考慮)되어야 할 민간신앙자료(民間信仰資料)로서 「시조단지」 문제(問題)가 있기에 다음에 이의 전승상황(傳承狀況)을 잠간(暫間) 살펴보고 나서 비교(比較) 검토(檢討)에 들어가기로 하겠다.

### 三. 시조(始祖) 단지 신앙(信仰)의 실제(實際)

#### 1. 경북(慶北) 영일군(迎日郡) 구룡포읍(九龍浦邑) 대포리(大浦里)의 예(例)

단지속에 쌀을 넣어서 안방(房) 선반위에 모셔 놓는다. 매년(每年) 추수(秋收)하면 신곡(新穀)으로 바꿔 놓는데 이것을 「시조단지」라고 한다. 그리고 그 선반 위에 시조단지와 나란히 「조상(祖上) 당세기」라는 것을 모셔 놓는다



구룡포읍대포리민가내(九龍浦邑大浦里民家內)의 시조단지와 조상 당세기

이대봉사(二代奉祀)면 둘, 삼대봉사(三代奉祀)면 셋, 제사(祭祀)를 모시는 수효(數爻)대로 모신다. 이것은 나무나 대(죽(竹))으로 만들어지고 그 안에는 베를 접어 넣고 그 베포(布)속에 백지(白紙)가 있었는데 이 속에 소나 논밭 등(等)을 팔았을 때 그 돈 한두 장이나 또는 전부(全部)라도 넣어 놓는다. 신고(申告)에 대신(代身)하는 것이다.

그런데 시조단지의 경우 그 명칭(名稱)이나 신앙심의(信仰心意)는 일정(一定)치가 않아서 대포리(大浦里) 삼동(三洞)에서는 김동길씨(金東吉氏), 이장(里長) 외(外) 2. 3명

(名)이 다 한결같이 「시조(始祖)단지」라고 분명(分明)하게 이야기했는데 한학(漢學)에 조예(造詣)있고 양반층(兩班層)인 하중청옹(河中淸翁)은 매년(每年) 추수(秋收)하고, 신곡(新穀)으로 바꾸면 구곡(舊穀)은 꺼내서 밥을 지어 나누어 먹는데 그 반찬에는 「고기」를 안쓰며 이것을 「세존(世尊)단지」라 한다고 했다. 이 두 경우는 분명(分明)하게 차이(差異)가 나는 양극단(兩極端)이요, 이 지방(地方) 노인(老人)들에게 물으면 「시조」「세존」「시준」「세준」등(等)으로 발음(發音)은 각(各)가지로 나오는 형편(形便)이다. 그리고 이 단지를 안방 시렁위에 모신다는 것은 그 건축양식(建築樣式)이 대부분(大部分) 안방 윗방 부엌까지 합(合)해서 방(房) 셋인 일자형(一字形) 가옥(家屋)으로 여기가 제일(第一) 신성(神聖)한 곳이며 「마루」가 없는 가옥(家屋)들이었다. 마루가 있는 경우는 당연(當然)히 마루로 모셔질 것으로 여기거니와 물론(勿論) 이것이 규모를 갖춘 큰 양반가옥(兩班家屋)이 되면 사당(祠堂)이니 신주(神主)니로 변화(變化)되고 말 것이겠는데, 서민층(庶民層)에서 보존(保存)되고 있는 이 옛 전승(傳承)이 지금 우리의 연구(研究)에는 크게 도움이 될 것이 우선(于先) 다행(多幸)일 따름이다.

## 2. 경북(慶北) 안동군(安東郡) 풍천면(豐川面) 하회동(河回洞)의 예(例)

단지 속에 쌀을 넣고 첫 수확(收穫) 신곡(新穀)으로 바꾸고 구곡(舊穀)으로는 밥을 지어서 가족(家族)이 나누어 먹는다. 먼저 신곡(新穀)으로 조상(祖上)께 천신(薦新)을 하고(9월(月) 9일(日)) 성주단지 용(龍)단지들을 위(爲)한다. 「용(龍)단지」를 위하는 것은 풍우(風雨)가 순조(順調)롭고, 농사(農事)가 풍년(豐年)이 되게 해달라고 용(龍)을 위(爲)하는 것이며 성주단지를 위하는 경우는 가내(家內)의 평안(平安)을 비는 것이라고 했다.

(하회동(河回洞) 박순이씨(朴順伊氏) 여(女), 59세(歲) 담(談))

## 3. 경북(慶北) 문경군(聞慶郡) 동노면(東魯面)의 용호(龍壺)

이 지방(地方)에서는 용분(龍盆)(rjong-tan-tzi)라 부르며 그 속에 백미(白米)를 봉안(奉安)하고 그 봉사장소(奉祀場所)는 대청(大廳)뿐이 아니고 편의상(便宜上) 방(房)의 선반에 모시는 일도 있다. 용분(龍盆)은 일가(一家)의 수호신(守護神)으로 신앙(信仰)되고 있다.

(삼품창영(三品彰英) 「조선(朝鮮)의신상(新嘗)」에서, 전국(全國) 30여개(餘個)의 사례중(舉例中)의 15예(例). 일문(日文) 필자직역(筆者直譯))

## 4. 전라도(全羅道) 곡성군(谷城郡) 목등동면(木等洞面)의 성주분(誠主盆)

성주분(誠主盆)은 선조(先祖)의 신위(神位)를 대신(代身)하는 것으로 매년(每年) 신갱미(新粳米)를 갈아 넣어서 봉안(奉安)한다.

(전게서(前揭書) 17예(例))

## 5. 평북(平北) 철산군(鐵山郡) 서림면(西林面)의 성주분(誠主盆)

제석신(帝石神)이라 부르며 창고(倉庫)의 일우(一隅)에 봉안(奉安)하고 성주분(誠主盆)을 놓고 신곡(新穀)의 인(粃)을 넣어서 매년(每年) 바꾼다. 태주(宅主)가 바뀌면 그것을 바꾼다.

(전게서(前揭書) 12예(例))

신앙심(信仰心意)이 잡다(雜多)하나 이상(以上) 단지 유(類)에 신곡(新穀)을 모셔 넣는 신앙(信仰)도 전국분포(全國分布)이다. 그것은 같은 전국분포(全國分布)의 부락제중(部落祭中)에서 전기(前記) 영남지역(嶺南地域)의 골맥이 동제당(洞祭堂)의 분포권(分布



圈)처럼 한계(限界)가 선명(鮮明)치 못한 느낌이 더 많기는 하지만 그런대로 영일군(迎日郡) 월성군(月城郡) 경주시등지(慶州市等地)의 경우는 그 내용(內容), 성격면(性格面)에서 역시(亦是) 김알지신화(金闕智神話)와 관련(關聯)되는 면(面)이 있어 보이기에 김알지신화(金闕智神話)의 인용후(引用後) 그 성격(性格), 기능(機能) 제의형태(祭儀形態)들을 견주어서 살펴 나가기로 하겠다.

#### 四. 김알지신화(金闕智神話)의 해석(解釋)

삼국유사(三國遺事) 권제일(卷第一)의 기록(記錄)을 먼저 인용(引用)하기로 한다.

金闕智 脫解王代

永平 三年 庚申(一云中元六年, 誤矣 中元盡二年而已)八月四日 瓠公夜行月城西里 見大光明於始林中(一作鷄林) 有紫雲從天垂地 運中有黃金櫃 掛於樹枝光自櫃出 亦有自鷄鳴於樹下 以狀聞於王 駕行基林 開櫃有童男 臥而即起 如赫居世之故事 故因其言 以闕智名之 闕智即 鄉言小兒之稱也 抱載還闕 鳥獸相隨 喜躍踴躍 王澤吉日 冊位太子 後讓於婆娑 不即王位 因金櫃而出 乃姓金氏 闕智生熱漢 漢生阿都 都生首留 留生郁部 部生俱道(一作仇刀) 道生未鄒 鄒即王位 新羅金氏 自闕智始

이병도박사(李丙燾博士)에 의(依)하면 「원시국가(原始國家)로서의 지지(遲遲)한 걸음을 걸어온 신라(新羅)가 부근(附近)의 군소제국(群小諸國)을 차례(次第)로 병합(併合)하여 중앙집권(中央集權)의 정치체제(政治體制)로 발전(發展)하기는 전술(前述)한 바와 같이 마립간(麻立干) 칭호(稱號)를 사용(使用)하기 시작한 내물(奈勿)(제(第)17대(代))시(時)(서기(西紀) 356년(年)즉위(即位))로 보지 않으면 아니되겠다」<sup>1</sup>

과연(果然) 그래서 신라(新羅) 초기(初期) 제왕(帝王)들의 기록(記錄)은 그 구석 구석에 모두 비실재적(非實在的)인 고대신앙(古代信仰)을 반영(反映)하고 있어서 신화학적(神話學的)인 각도(角度)에서의 연구(研究)를 요청(要請)하고 있다. 이제 이 김알지신화(金闕智神話)를 이런 각도(角度)에서 한 구절(句節)씩 뜯어 보기로 하되, 특(特)히 이것이 부락제(部落祭)와 밀접(密接)하게 연관(聯關)을 가진 것으로 보이기에 편의상(便宜上) 부락제(部落祭)와 대비(對比)해 가기로 하겠다.

##### 1. 일시(日時)의 문제(問題)

여기 김알지(金闕智) 탄생(誕生)의 「영평삼년(永平三年) 경신(庚申)(일운중원육년(一云中元六年), 오의(誤矣), 중원진이년서기(中元盡二年而已))팔월사일(八月四日)」의 영평(永平) 삼년(三年) 경신(庚申)은 진단학회(震檀學會) 역사연표(歷史年表)에 의(依)하면 후한(後漢) 명제(明帝)3년(年)으로 서기(西紀) 60년(年)에 해당(該當)한다. 그런데 그것이 삼국사기(三國史記)에 의(依)하면 탈해왕대(脫解王代)의 「구년춘삼년(九年春三年)」로 되어 있고 그것은 서기(西紀) 65년(年)에 해당(該當)되어 다소(多少) 차(差)가 진다. 동연표(同年表)에 의하면 주(註)의 중원(中元)은 실제(實際)로 6년(年)까지 있고, 그것은 서기전(西紀前) 144년(年)에 해당(該當)되어 상당(相當)한 차이(差異)를 보인다. 어쨌든 김알지(金闕智)를 비실재적인물(非實在的人物)로 보는 바에는 조작(造作)된 연수(年數)로 돌릴 수 있겠으나 일자문제(日字問題)는 좀 생각을 해 봐야 하겠다. 일자(日字)는 전기(前記)와 같이 유사(遺事)와 사기(史記)에 각기(各己) 「팔월사일(八月四日)」과 「춘삼월(春三月)」로 나와서 언뜻 해석(解釋)이 안가나, 박혁거세(朴赫居世)의 일자(日字)를 찾아보면 유사(遺事)에는 「전한지절(前漢地節) 원년임자삼월삭(元年壬子三月朔)」에 난

註: 1 .李丙燾:韓國史古代編(震檀學會) 398面

생(卵生)이요. 「오봉원년갑자남립위왕(五鳳元年甲子男立爲王)」으로 되었는데 사기(史記)에는 「전한효선제오봉원년갑자(前漢孝宣帝五鳳元年甲子) 사월병진(四月丙辰)(일일정월십오일(一日正月十五日)) 즉위(卽位) 호거서간(號居西干)」으로 되어 있다. 핵심(核心)은 이 박혁거세(朴赫居世) 즉위(卽位) 연월일(年月日)에 있다. 이것이 아마도 기준(基準)이 되었을 것 같다. 「삼국사기(三國史記)」요 「삼국유사(三國遺事)」라고 하지만 신라(新羅) 위주(爲主)요 우선(于先)인 이 사서(史書)들의 신화시대(神話時代)의 연대(年代) 결부(結付)는 자연(自然) 신라(新羅) 시조(始祖) 혁거세(赫居世)의 건원(乾元)에 중점(重點)을 두었을 것이다. 갑자(甲子) 건원사상(建元思想)에 의(依)해서 그 시조즉위(始祖卽位)를 「○○원년(元年) 갑자(甲子)」로 하고, 그래서 많은 신적(神的) 군왕(君王)들의 생일(生日) 즉위일(卽位日)들 중(中)에서도 시조(始祖)의 즉위일(卽位日)을 4월병진(月丙辰)(일일정월십오일(一日正月十五日))로 하기에 이르렀을 것이다.

이 4월병진(月丙辰)과 정월십오일(正月十五日)을 두고 생각하자면 우선(于先) 정월십오일(正月十五日)은 현금(現今)도 부락제(部落祭)를 제일(第一) 많이 지내는 대표적(代表的)인 일자(日字)요, 사실(事實) 그것은 음력법(陰曆法)으로 하자면 첫대보름 달밤으로 참다운 신년(新年) 연초(年初)이다. 시조(始祖) 즉위(卽位)는 「원년(元年), 갑자(甲子), 연초(年初)」인 것이다. 이날의 부락제(部落祭)도 그 첫 새벽에 거행(舉行)된다. 전기(前記) 「부락제(部落祭)」에 의(依)하면 전국(全國) 368개(個) 부락제(部落祭)를 가지고 조사(調査)한 결과(結果) 일정제일(一定祭日)이 144, 임시선정(臨時選定)이 224, 그중 부락제(部落祭) 제일(祭日)이 군별(軍別)로 일람표(一覽表)로 되어 있는 것을 토대(土臺)로 잡을 수 있는 통계법(統計法)은 못되지만 대체적(大體的)인 추세(趨勢)를 보이기 위(爲)해 계산(計算)해 보면 경북(慶北)이 92% 경남(慶南)이 75%로 정월십오일(正月十五日) 제일(祭日)이 압도적(壓倒的)인데 황해도(黃海道) 같은데는 9월(月)9일(日)이 70%가 되어 특이(特異)하고, 여타지방(餘他地方)은 제일면(祭日面)에서는 각월각일(各月各日)이기는 하지만 고정일자(固定日字)를 들자면 아무래도 정월십오일(正月十五日) 제일(第一) 많다.

다음에 「사월병진(四月丙辰)」을 보기로 한다. 이 「사월병진(四月丙辰)」을 비롯한 매월일(每月日)에 대(對)해서는 일찍이 이재수교수(李在秀教授)가 「오봉원년갑자(五鳳元年甲子)라는 연차(年次)에 대(對)하여는 선학(先學)의 설(說)에서 설명(說明)되고 있는 바와 같이, 삼국중(三國中) 신라(新羅)의 건국(建國)을 최고(最古)로 하기 위(爲)하여, 또는 갑자건원(甲子建元)의 사상(思想)에 의(依)하여 이러한 연차(年次)가 사가(史家)의 궤상(軌上)에서 선정(選定)된 것이라 하겠으나, 시일(時日)에 있어서는 역사(歷史) 찬술가(撰述家)가 별로 윤색(潤色)할 필요(必要)가 없었다고 생각하므로 전설본래(傳說本來) 그대로를 인용(引用)하였을 것이다. 사월병진(四月丙辰)은 불명(不明)하나 정월십오일(正月十五日) 곧 상원일(上元日)은 연중(年中)에서도 「여러 행사(行事)가 많았던 날인 만큼 이 때 시조왕(始祖王)이 탄생(誕生)하였다는 데에는 민속(民俗)과 필연적(必然的) 무슨 관계(關係)가 있지 않을까?」하고 「사월병진(四月丙辰)이 만약 4월(月) 8일(日)이라면 불교(佛敎)의 습합(習合)의 결과(結果)로 그 월일(月日)이 석존강탄일(釋尊降誕日)로 추이(推移)하였다고 보아야 한다」하고, 다시 연등의식(燃燈儀式)에 언급(言及)하여 「연등(燃燈)의 의식(儀式)은 고려사(高麗史)에 의(依)하면 태조시(太祖時)에 고래(古來)의 유풍(遺風)에 의(依)하여 설립(設立)하기 시작(始作)한 것인데 그 당시(當時)에는 정월십오일(正月十五日)에 행(行)하기로 되었던 것이다 현종시(顯宗時)에 와서 2월(月) 15일(日) 즉(卽) 불타열반일(佛陀涅槃日)에 행(行)하기로 변경(變更)하고, 공민왕시(恭愍王時)에는 다시 불타(佛陀)의 탄신(誕辰)인 4월(月) 8일(日)에 행(行)하기로 변경(變更)하였던 것이다」했다.<sup>2</sup>

「4월(月) 병진(丙辰)이 만약 4월(月) 8일(日)이라면」 했는데 그것은 아마도 4월(月) 8일(日)이 틀림이 없을 것 같고, 그리고 그 날짜도 역시(亦是) 민속(民俗)과 관계(關係)가 있는 부락제(部落祭)의 날짜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본다. 이 현지조사(現地調査)에서 우리는 가장 고풍(古形)을 풍부(豐富)히 보유(保有)하고 있던 하회동(河回洞)에서 제일(祭日)이 정월(正月) 15일(日)과 4월(月) 8일(日)의 연(年) 2회(回)인 사례(事例)를 단(單) 하나이나마 찾았었다.

전기(前記) 「부락제(部落祭)」(449면(面))에서도 하나 평북(平北) 벽동군(碧潼郡)의 3월(月) 3일(日), 4월(月) 8일(日), 9월(月) 9일(日)의 연(年) 3회(回) 예(例)가 보였다. 보다싶이 제일(祭日)은 3월(月)이면 삼짓날, 9월(月)이면 9일(日), 정월(正月)이면 15일(日), 4월(月)이면 초(初)8일(日)인 경우가 대부분(大部分)이다.

시조신화(始祖神話)에 4월(月) 초(初)8일(日)이라는 불교적(佛敎的) 윤색(潤色)이 가(加)해진 것은 물론(勿論) 후대(後代)의 일이다. 신화(神話)란 어떤 사실(事實)에 대한 후세적(後世的) 설명설화(說明說話)이며, 그 후세적형성(後世的形成)에 다시 구두전승(口頭傳承) 되는 후세(後世)에 다시 또 후기적(後期的) 문화소(文化素)가 첨가(添加)되는 법(法)이다. 그것은 신라삼통이후(新羅三統以後)에야 비롯된 성칭(姓稱)이 여기 시조신화(始祖神話)들에 박(朴) 석(昔) 금(金)등으로 첨가(添加)된 것이다. 다 궤(軌)를 같이 하는 것으로 이런 사례(事例)는 더 많이 들을 수도 있는 문제(問題)이겠다.

시간면(時間面)에 있어서도 「호공야행(瓠公夜行)」으로 전부(全部)가 밤중(中)의 얘기로 돼 있고 「백계명(白鷄鳴)」으로 닭우는 소리까지 나와서 전기(前記) 대포리(大浦里)의 부락제(部落祭)같은 경우와 그대로 부합(附合)되는 느낌이다. 그런데 여기 「백계명(白鷄鳴)」이니 「계림(鷄林)」이니 또는 혁거세비(赫居世妃) 알영부인(闕英夫人)을 탄생(誕生)시킨 「계룡(鷄龍)」 등(等) 「계(鷄)」의 존재(存在)가 매우 주목(注目)되는 바 있거니와 이는 「계룡(鷄龍)」 좌협탄생(左脇誕生)의 알영비(闕英妃) 문제(問題)의 고찰(考察)에 한목 같이 미루기로 하겠다.

## 2. 장소(場所)의 문제(問題)

여기 장소(場所)의 문제(問題)는 그대로 제당(祭堂)에 관(關)한 문제(問題)가 되겠다. 더러 오늘날 부락제(部落祭)의 제당(祭堂)은 애초에 있었을 신목(神木)이 노후(老朽)되어 없어지면 대신(代身) 그 옆에 세워졌던 당사(堂祠)만이 남고, 그렇게 되니 신체(身體)로서의 성황우(城隍竽)이나 신목(神木)이 대신(代身) 위패(位牌)(목제(木製)에 묵서(墨書))나 신도(神圖)로 대체(代替)되어 있는 예(例)를 간간(間間)이 보기도 한다. 그러나 아직도 대부분(大部分)은 신목(神木)이 주(主)요, 신목(神木) 하나만이 신당(神堂)과 신체(身體)와 제단(祭壇)을 다 겸비(兼備)하는 것이 역시(亦是) 원초형(原初形)이요 일반형(一般形)이겠다. 그리고 이 신목(神木)에 「골매이」나 「서낭님」이나 「본향(本鄉)님」 이나가 존재(存在)해서 그래서 이 신목(神木)의 가지라도 절단(切斷)을 하면 동티를 받는다는 것이다. Tylor의 말을 빌르자면 소위(所謂) Animisim에 해당(該當)될 것으로 세계적(世界的)으로 넓은 분포(分布)를 보이고 있는 원시적(原始的) 신앙형태(信仰形態)이다.

지금(至今) 이것을 김알지신화(金闕智神話)와 견주어 볼 때에 「견대광명어시림중(見大光明於始林中)」이니 「괘어수지(掛於樹枝)」니 「백계명어수하(白鷄鳴於樹下)」니 「가행기림(駕行基林)」이니 또는 이 알지(闕智) 탄생(誕生)으로 해서 혁거세신화기록(赫居世神話記錄)에서는 「개국호위계림(改國號爲鷄林)」이니 하고 수목(樹木)이야기가 많이 나온 (복사상태불량) 기 「림(林)」이니 「수(樹)」니 한 이 「계림(鷄林)」은 역시(亦是)

註: 2 .李在秀: 「朴赫居世傳說考」慶北大學校 高秉幹博士 頌壽記念論叢 530面

원초적(原初的)인 제당(祭堂)으로 봐야 하 (복사상태불량) 단(但) 그것이 원초적(原初的)인 제당(祭堂)이기는 하나 그것은 민간(民間)의 것이 아니라 관(복사상태불량) 것이요 궁중(宮中)의 것이다. 태홍섬씨(泰弘夔氏)에 의(依)하면 신라(新羅) 삼통(三統) 이후(以後)의 일이겠으나 당시(當時)의 궁성(宮城)은 월성(月城)을 중심(中心)으로 한 임해전지일대(臨海殿址一帶)이며, 이 궁성(宮城)을 중심(中心)으로 북(北)으로 관위(官衛)가 있었던 듯 하니 지금(至今) 첨성대(瞻星臺) 부근(附近)도 그 중(中)에 포함(包含)될 것이다<sup>3</sup>

그렇게 되면 계림(鷄林)은 물론(勿論) 궁성내(宮城內)에 위치(位置)하는 제당(祭堂)이다. 즉(卽) 계림(鷄林)은 원초농경국가(原初農耕國家)에서 가장 중대(重大)한 농경의례(農耕儀禮)를 현재(現在)의 골맥이 동제(洞祭)와 같이 집단수호(集團守護)의 기원(祈願)과 시조(始祖)에 대한 조상숭배성(祖上崇拜性)을 띄며 거행(舉行)하던 곳이라고 일단(一段) 전제(前提)해 볼만하다. 유감(遺憾)스럽게도 삼국사기(三國史記)의 「제사(祭祀)」(권제(卷第)32)조(條)의 기록(記錄)은 너무 간단(簡單)하고 김부식(金富軾)의 유가류(儒家流) 필치(筆致)로 단서(端緒)를 잡기가 어려웠으나 궁성내(宮城內)의 농경의례(農耕儀禮)는 이조(李朝)에도 예(例)컨데 다음과 같은 것이 보인다.

內農作 國俗於元月望日 縛藁作穀穗 連帶衆多實 架木通索 以所年穀 關內因國俗 稍煩基制 模象七月篇所載人物 以爲畊種之狀(練藜室記述 別集12)

「알내인국속(關內因國俗)」이라 했거니와 궁중(宮中)이라고 해서 다를 것이 있을 수 없다. 후세(後世)에 오면 중국(中國)의 제의형태(祭儀形態)들도 받아들여지기는 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민간(民間)과 궁중(宮中)의 제의형태(祭儀形態)는 서로 넘나들 수 밖에 없다. 삼국사기(三國史記) 유사(遺事)들 처처(處處)에 보이는 신앙(信仰) 기록(記錄)들도 현(現) 민간신앙(民間信仰)과 흡사(恰似)한 점이 많음을 볼 때에 계림(鷄林)의 성격(性格)에도 현부락제당(現部落祭堂) 「당수(堂樹)나무」에서의 제의(祭儀)의 관변적(官邊的) 궁궐적(宮闕的)인 성격(性格)이 갖추어 졌던 것으로 보면 될 것이다.

### 3. 제관(祭官)의 문제(問題)

여기 김알지신화(金闕智神話)에 출현(出現)하는 인물(人物)에는 탈해왕(脫解王)과 호공(瓠公)의 둘이 있다. 탈해왕(脫解王)은 사대왕(四代王)으로 왕손(王孫)에 올라 있으나 유사(遺事)에 의하면 「동악신(東岳神)」으로 비실재적(非實在的)인 토함산(吐呑山)의 산신(山神)이다. 이 신화(神話)를 어디까지나 부락제(部落祭)와 견주어 봄으로써 김알지(金闕智)의 보다 세부적(細部的)인 실제(實際)와 양상(樣相)을 파악(把握)해 보려는 지금(至今) 석탈해(昔脫解)를 역시(亦是) 신(神)으로 돌리면 하나의 호공(瓠公)이 남는데 그도 제관(祭官)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호공(瓠公)은 (복사상태불량) 외에도 삼국사기(三國史記) 유사(遺事) 등(等)에 마한(馬韓)에 사신(使臣)갔던 일(赫居世왕대(赫居世王代)), 탈해(脫解)와 (복사상태불량) 을 한 일, 탈해왕대(脫解王代) 대보(大輔)벼슬을 해서 결국(結局) 1, 2, 3, 4대(代)(약(約) 140년간(年間)) (복사상태불량) 을 섬겼다는 신화적인물(神話的人物)로 기록(記錄)되고, 다시 「본왜인(本倭人) 초이호계요(初以瓠繫腰) 도해이래(度海而來) 고칭호공(故稱瓠公)」으로, 다분(多分)히 주술성(呪術性)을 띄었으며 지리성(地理性)으로 해서 생긴 작은 해양신(海洋神)이 왜인설(倭人說)에까지 발전(發展)했던 존재(存在)인 것 같다.

결국(結局) 여기 제관(祭官)도 사기(史記) 혁거세(赫居世) 탄생기록중(誕生記錄中)의 진한육부(辰韓六部)의 대표자(代表者) 고허촌장(高墟村長) 소벌공(蘇伐公)을 인용(引用)해서 봐야 하겠다. 여기 「소벌공(蘇伐公)」은 삼국사기(三國史記)에 보이는 다음 최고

註: 3 泰弘夔 慶州의 古蹟13面 王都의 復原

관직자명(最高官職者名)의 동음(同音) 차자(借字) 표기(表記)이다

儒理王九年 置十七等 一日伊伐浪(或云 伊罰干 或云于伐浪 或云角干 或云角祭 或云舒發翰 或云舒弗邯(卷 38 職官上) 그리고 三國遺事 赫居世王條에는 다음과 같은 記錄이 있다. 國號 徐羅伐 又徐伐(今俗訓京字云徐伐, 以此故也)

그래서 「서벌(徐伐)」은 여기 일연선사(一然禪師)가 친절(親切)하게 주(註)를 달아주고 있듯이 「시벌-셔□-서울」<sup>4</sup>

로 왕경(王京) 「서울」로도 됐지만 그 「셔□」은 한편 골매이를 모시는 당수(堂樹) 나무와 같이 조영(祖靈) 김알지(金闕智)를 모시던 종교적(宗敎的)적인 「성림(聖林)-수풀」로도 관상(觀想)되었던 것이다. 이를테면 제정일치사회(祭政一致社會)의 제정적(祭政的) 중심처(中心處)이겠는데 그렇게 보자면 전기(前記) 「소벌공(蘇伐公)」 「사발한(捨發翰)」 「사불감(捨弗邯)」이야 말로 성림(聖林)에서의 제사장(祭司長)으로 제정일치사회(祭政一致社會)의 실재인물중(實在人物中)에서는 최고존장자(最高尊長者)요 혁거세(赫居世)니 알지(闕智)니는 그 제의(祭儀)에서 모셔지던 신적존재(神的存在)임은 두말할 것도 없다. 그리고 그러한 신화시대(神話時代)를 벗어나서 군왕(君王)이 실재인물(實在人物)이 되면 그때 비로소 각간(角干)으로 표기(表記)되며 예(例)컨데 「대각간(大角干) 김유신장군(金庾信將軍)」처럼 군왕(君王) 다음의 실제(實際)의 최고관직자(最高官職者)가 된다. 이제 제정(祭政)은 분리(分離)되기 시작(始作)한 것이나, 그러나 현재(現在)의 부락제(部落祭)에도 아직 제정일치적(祭政一致的)인 면(面)이 있어서 부락제(部落祭)가 끝나면 부락내(部落內) 일년간(一年間)의 공사(公事)들이 논의(論議)가 되나 이러한 실정(實情)은 후(後)의 제차면(祭次面)에서 다시 살피기로 하겠다.

이 밖에 초기군왕중(初期君王中)에서도 예(例)컨데 남해차차웅(南解次次雄) 같은 경우는 신(神)이 아니고 제의상(祭儀上)의 존장자(尊長者)같은 성격(性格)으로 기록(記錄)이 되었으니 이 경우는 아마도 군왕적(君王的)인 계보화(系譜化) 신적(神的)인 인격화(人格化)에 있어서 실재(實在)했던 위대(偉大)한 샤아만들의 이미지에 근원(根源)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것은 그 「차차웅(次次雄)」이라는 어의(語義)가 존장지칭(尊長指稱)이요, 김대문(金大問) 같이 「方言謂巫也 世人以巫而鬼神 尙祭祀 高畏敬之 遂稱尊長者爲慈充」(遺事南海王條)으로 샤아만을 의미(意味)하는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에 짝채워진 부인(夫人)이 「妃雲帝夫人(一作運梯今迎日縣西有雲梯山聖母祈旱有應)」(遺事南海王條)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산신(山神)(여신(女神))인 때문도 있다. 결국(結局) 남해왕(南解王)은 그 표현(表現)에서 위대(偉大)한 Rain-maker였던 것으로 성격(性格)지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오늘날이야 다 부락제(部落祭)가 유교화(儒敎化)해서 제관(祭官)이 선택(選擇)되어 유교식(儒敎式)으로 집행(執行)되고 더러 별신(別神)곳에서나 무격사제(巫覡司祭)를 보지만, 고행(古形)이 더 보존(保存)돼 있는 제주도(濟州道) 경우처럼 무속일색(巫俗一色)으로 샤마니즘에 기저(基底)를 둔 제의(祭儀)가 아니었을까 생각된다. 「소벌공(蘇伐公)」도 따라서 그런 각도(角度)에서 봐야 할 것 같고, 이 점은 현재(現在)의 부락제(部落祭)와 물론(勿論) 양상(樣相)을 달리해서 최근(最近)까지 무격사제(巫覡司祭)의 별신(別神) 곳들이 결부(結付)돼있었던 점을 봐서도 무속적(巫俗的)이었던 것으로 봐야 하겠다. 그러자면 제관(祭官) 「소벌공(蘇伐公)」이나 「차차웅(次次雄)」이라는 사실(事實) 결과적(結果的)으로는 그것이 그것이였겠는데 오히려 샤아만 색조(色調)가 짙은 「차차웅(次次雄)」적(的)이었던 것으로 제관(祭官)은 봐야 하겠다.

#### 4. 제신(祭神)의 문제(問題)

문제(問題)는 제신(祭神)에 있다. 김알지(金闕智)의 정체(正體)는 여기서 파악(把握)이

註: 4 .梁柱東 : 國文學古典讀本 253面

세부적(細部的)으로 될만큼은 다되어야 하겠다. 그리고 그 제신(祭神)에 있어서는 「골매이」와 「시조(始祖)단지」가 문제되어야 하겠다.

「골매이」는 그 음(音)이 「골목이-골매이」들로 발음(發音)이 일정(一定)치 않고 중잡을 수가 없었는데 이는 「골」과 「매이 또는 목이」의 복합어(複合語)로 간주(看做)된다. 「골」은 장음(長音)으로 발음(發音)되는 것이 우리말 사전(辭典)에서 해당(該當)어의(語意)를 찾으면 「곡간(谷間)」 「동리 가운데 길」과 「고을의 준 말」등(等)이 보인다. 그리고 「매이」는 「막다(防)」의 명사형(名詞形) 「막이」의 음운동화(音韻同化)(역행(逆行))로 봐야겠다. 또는 「매이」는 (값이나 등수등(等數等)을)헤아려서 정(定)한다는 뜻의 「매기다」의 「매기는 자(者)」의 명사화(名詞化)로도 볼 수 있겠다. 결국(結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어의(語意)는 이러하다.

- ① 골로 들어가는 길목의 존재 - 「골목이」
- ② 고을의 액(厄)을 막아주는 자(者) - 「골매이」
- ③ 고을을 정(定)하여 주는 자(者) - 「골매이」

그런데 골매이의 기능(機能)은 전기(前記)한대로 그 신앙심의(信仰心意)에서 부락(部落)의 창건신(創建神), 시조신(始祖神), 수호신(守護神)의 세 면(面)을 볼 수 있었다. 애초에 그 어휘(語彙)가 형성(形成)될 때에야 삼자중(三者中) 어느 한 의미(意味)로 형성(形成)되었겠으나 현재(現在)의 기능면(機能面)에서는 삼자(三者)를 다 구비(具備)하고 있으니 어느 것이라 지적(指摘)하기가 어렵다. 발음(發音)도 일정(一定)치 않으니 더 중잡을 수가 없어서 그저 이 정도(程度)로 그 실정(實情)을 살피는데서 그치기로 한다.

다음 그 기능면(機能面)에서는 자질(質)그래한 부대자료(附帶資料), 단편설화(斷片說話)들이 있으나, 전기자료제시(前記資料提示)에서도, 지금 어의고찰(語意考察)에서도 언급(言及)이 다소(多少)되었고 지면관계(紙面關係)도 있어서 이만 줄인다. 그리고 그 성별(性別)에 있어서는

- ① 남신예(男神例) 대포리(大浦里) 3, 구만리이동(九萬里二洞) 1 계(計) 4
- ② 여신예(女神例) 구만리이동(九萬里二洞) 1, 일동(一洞) 1, 하회동(河回洞) 3, 소천리(韶川里) 1 계(計) 6
- ③ 불명수(不明數) 하회동(河回洞)옆 다릿골 1, 부흥동(富興洞) 3, 동래(東萊)(구포(龜浦)) 1, 또는 2 계(計) 5 또는 6

그래서 신(神)의 수효(數爻)로는 남신(男神) 4, 여신(女神) 6, 불명(不明) 5 또는 6, 건수(件數)로는 남신(男神) 2 여신(女神) 4, 불명(不明) 3 또는 4의 수자(數字)이다. 더구나 대포리(大浦里)(남신(男神) 3)의 경우는 임진난(壬辰亂)(또는 세조찬위시(世祖篡位時))로 얘기되니 후세적(後世的)인 남신화(男神話)를 면(免)치 못했을 것으로 이 적은 수자(數字)로나마 골매이는 여신(女神)이 주(主)요 우위(優位)에 서는 존재(存在)인 듯하다.

다음에 그 분포문제(分布問題)를 살펴보면 동해안이동(東海岸以東), 북(北)으로는 영덕(盈德), 영주(榮州)에서 그치는 것 같고, 서(西)로는 안동(安東), 남(南)으로는 동래(東萊)에 미치고 있다. 서북(西北)으로는 근래(近來)의(1964-1966년(年)) 성대(成大) 국문과(國文科)의 「안동문화권(安東文化圈) 학술조사보고서(學術調查報告書)」에도 12개(個)의 이 지역(地域) 부락제(部落祭) 상황(狀況)이 보고(報告)되었는데 골목이는 보이지 않았으니 여기서 그치는 것 같고 남서(南西)로 얼마나 더 분포(分布)가 돼 있을런지 모르겠다. 앞으로 조사보고(調查報告)들이 주목(注目)된다.

어떻든 김알지(金闕智)는 이 분포권(分布圈)의 중심(中心)이며 지금(至今)도 분명(分明)히 골매이나 시조단지들의 신앙(信仰)이 전승(傳承)되고 있는 이 지역(地域)에서 생긴 신화(神話)이다. 이상(以上)과 같은 어의(語意), 기능(機能), 성별(性別), 분포(分布),

제의형태(祭儀形態)들을 갖춰서 거행(舉行)되던 제의(祭儀)에서 모셔지던 신(神)이다. 이런 각도(角度)에서 유사(遺事)의 신화기록(神話記錄)을 다시 살펴 보면 대체(大體)로 납득(納得)이 가는 것 같으나 「운중유황금궤(雲中有黃金櫃)」라고 한 「황금궤(黃金櫃)」를 싸고도는 신화적표현(神話的表現)들이 눈에 띄어서 이제 이것을 문제(問題) 삼기로 하겠다. 그 황금궤(黃金櫃) 속에는 동남(童男)이 있었고 그에게 「알지명지(闕智名之)」 했는데 「알지즉향언소아지칭야(闕智卽鄉言小兒之稱也)」로 되어 있다.

이 「알지(闕智)」라는 표기(表記)는 김알지(金闕智)의 경우만이 아니고 박혁거세(朴赫居世)의 경우도 동일(同一)하니 유사(遺事) 혁거세조(赫居世條)에도

位號居瑟邯 或作居西干 初開口之時 自稱云闕智居西干 一起因其言稱之自後爲王者之尊稱 時人爭賀 …

양시조(兩始祖)의 이 「알지(闕智)」라는 어의(語意)에 대(對)해서는 삼품창영(三品彰英), 이재수(李在秀) 양교수(兩教授)에 의(依)해서 설명(說明)이 되어 있다. 삼품창영씨(三品彰英氏)는 「알갱이」 「알곡」 「알망이」 「씨알」 등(等)의 「알」에 착안(着眼)하여 이것을 「알지」의 「알」에 관련(關聯)시켜 「알」을 「곡물(穀物)」 「실(實)」 「핵(核)」 등(等)을 의미(意味)하는 말이며 지(智)는 신명(神名) 인명(人名)의 경칭어미(敬稱語尾)로 영위(靈威)를 의미(意味)하니 「알」에 「지」를 붙인 신인명(神人名) 알지(闕智)는 문자상(文字上) 곡령(穀靈)(Corn Spirit)으로 역(譯)할 수 있다고 했다<sup>5</sup>.

오늘날에도 쌀알은 시조단지 속에도 담겨지거니와 또 점복업자(占卜業者)나 무제(巫祭)속의 신의문답(神意問答)으로 쌀알은 신의(神意)를 나타내는 것으로 아직도 많이 사용(使用)되고 있다.

이러한 조령(祖靈)이며 곡령(穀靈)인 신(神)들이 소아(小兒)의 형태(形態)로 출현(出現)하는 것은 전기(前記) 문헌기록(文獻記錄)에서의 김알지(金闕智) 박혁거세(朴赫居世) 뿐아니라 고주몽(高朱蒙) 김수로(金首露) 석탈해(昔脫解) 제주도(濟州道)의 고랑부(高梁夫) 삼을나(三乙那)(얼나, 알나 = 소아(小兒))등이 다 마찬가지이고 이것은 세계(世界)의 시조신(始祖神)들 대부분(大部分)이 그렇게 신화적(神話的)인 표현(表現)을 받는다.

이상(以上) 「황금궤(黃金櫃)」는 「신라김씨자알지시(新羅金氏自闕智始)」라 했듯이 조령(祖靈) 겸(兼) 곡령(穀靈)을 담았던 그릇이다. 그 점(點)에 있어서는 그것은 시조(始祖) 단지와 조금도 다를바 없다. 시조(始祖) 단지도 신곡(新穀)으로 곡령(穀靈)을 담는다. 그래서 세존(世尊) 단지라고도 한다. 그리고 그것이 역시(亦是) 조령(祖靈)을 모시는 실정(實情)은 먼저 자료(資料) 제시(提示)가 되어 있다. 결국(結局) 김알지신화(金闕智神話)의 황금궤(黃金櫃)는 시조단지를 신화적(神話的)으로 표현(表現)한 것 외(外)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신령(神靈)을 담은 기명(器皿)은 단지의외(外)에도 바가지, 고리작(소형(小型))등(等)의 예(例)가 있으니 김씨왕가(金氏王家)의 것은 그것이 황금궤(黃金櫃)로 되어 있었는지 또는 단지가 신화적(神話的)인 표현(表現)을 입어서 황금궤(黃金櫃)가 되었는지 그것은 모르겠다. 여하간(如何間) 그래서 그 주변(周邊) 표현(表現)은 「유자운종천수지(有紫雲從天垂地) 운중유황금궤(雲中有黃金櫃) 궤어수지(掛於樹枝) 광자궤출(光自櫃出)」이니 「조수상수(鳥獸相隨) 희약창창(喜躍蒼蒼)」이니 하여 신화(神話)답게 유아적휘황성(幼兒的輝煌性)을 보이고 있다.

그러니 김알지신화(金闕智神話)가 보통(普通) 관변적(官邊的)인 부락제(部落祭)만의 반영(反映)이 아니고 색(色)다른 점(點)은 그것이 시조(始祖) 단지 신앙(信仰)까지 반영투입(反映投入)하고 있다는 점(點)이다. 이 점(點)은 다음과 같이 해석(解釋)을 해야 하겠다. 즉(卽)

註: 5. 李在秀 : 前揭書 512面

① 시조(始祖) 단지는 개별적(個別的)이요 가정적(家庭的)인 형태(形態)로서 조상숭배(祖上崇拜) 농경의례(農耕儀禮) 가내수호(家內守護)의 신앙(信仰)이다.

② 부락제(部落祭)는 공동적(共同的)이요 집단적(集團的)이며 부락적(部落的)인 형태(形態)로서 조상숭배(祖上崇拜), 농경제의(農耕祭儀), 부락수호(部落守護)의 신앙(信仰)이다.

그런데 계림(鷄林)에서의 제의(祭儀)는 김씨왕가(金氏王家)로서의 개별가정적(個別家庭的)인 제의(祭儀)와 원초부락국가(原初部落國家)로서의 집단적(集團的)인 제의(祭儀)와의 복합(複合)을 기반(基盤)이미지로 해서 형성(形成)된 신화(神話)이다. 조상숭배(祖上崇拜), 농경의례(農耕儀禮), 왕가(王家)와 국가수호(國家守護)의 기원(祈願) 심의(心意)가 그 속에 다 내포(內包)되었을 것은 물론(勿論)이다. 단(單) 실제(實際) 제의(祭儀)가 그렇게 시조단지와 부락제(部落祭)가 다 복합(複合)되어 있었는지의 여부(與否)에 대(對)해서는 물론(勿論) 단언(斷言)키 어렵다. 결과적(結果的)으로 김알지(金闕智)는 이러한 기반(基盤) 위의 현(現) 민속(民俗)으로 하자면 시조단지만인 신앙(信仰)의 신화적(神話的) 인격화(人格化)요 표현(表現)이다. 골맥이할때도 고주몽신화(高朱蒙神話)의 곡모적(穀母的) 모신(母神) 유화(柳花)처럼 마땅히 계보화(系譜化)가 되어서 문헌상(文獻上) 신화기록(神話記錄)에 올라야 했겠는데 원초(原初) 농경사회(農耕社會)에서 중요(重要)한 이 여신(女神)은 후세(後世) 부권사회(父權社會)의 사가(史家)들 주목(注目)을 끌 수 없었던지 사기(史記) 유사(遺事) 어디를 찾아봐도 비견(比肩) 내지(乃至) 해당(該當) 시킬만한 어휘(語彙)를 끝내 찾지 못했다. 유화(柳花)에 대(對)해서는 북사(北史) 고구려전(高句麗傳)에

「有司廟二所 一日扶餘神 刻木作婦人像

一日登高神 云是其始祖 夫餘之子 竝置官司 遣人守護 蓋河伯女 朱蒙云」

이런 실제(實際) 신앙형태(信仰形態)가 보이는데 그것이 신화상(神話上)에서는 하백녀(河伯女) 유화(柳花)가 남분(南奔)하는 아들 주몽(朱蒙)에게 오곡(五穀)의 종자(種子)를 주는 곡모적(穀母的) 여신(女神)의 성격(性格)으로 나타나며 그 밖에도 해모수(海慕漱)와의 사랑 이야기를 비롯해서 파란만장(波瀾萬丈)의 장편설화(長篇說話)를 이루었는데 이 신라(新羅)의 신화(神話)는 소박(素朴)하기 짝이 없어서 김알지(金闕智)에게는 아버지도 어머니도 아내도 나타나지 않고 오로지 신앙형태(信仰形態)만을 간결(簡潔)하게 반영(反映)하고 있을 따름이다.

##### 5. 제차(祭次)에 대(對)하여

현금(現今) 부락제(部落祭)를 전후(前後)한 행사중(行事中)에서 보편적(普遍的)으로 눈에 띄는 것은 제관(祭官)들의 목욕재계(沐浴齋戒)와 동내유지(洞內有志) 또는 부락민(部落民)들의 회동음복(會同飲福)이 있다.

날자는 일정(一定)치 않으나 수일(數日)씩 제일(祭日)을 앞두고 목욕재계(沐浴齋戒)하는 근신기간(謹慎期間)들을 가지니 이런 민속(民俗)이 또한 문헌상(文獻上)에 반영(反映)되어 있다. 이러한 제의(祭儀)의 행위(行爲)되는 부분(部分)을 제일(第一) 많이 반영(反映)해준 신화(神話)는 김수로왕(金首露王) 신화(神話)인데 유사제이(遺事第二) 가락국기(駕洛國記)에는 수로(首露) 탄생(誕生)의 설화(說話)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그 일자(日字)를 「삼월계욕지일(三月禊浴之日)」이라 하고 있다. 그리고 혁거세(赫居世) 탄생(誕生)에 앞서서는 「삼월삭육부조각육자제(三月朔六部祖各率子弟) 구회어알천안상(俱會於闕川岸上)」으로 물가에 모인 것으로 되어 있다. 알지(闕智) 탄생기록(誕生記錄)에는 물기는 보이지 않는다. 이런 제의(祭儀)를 앞둔 목욕(沐浴)을 우리는 남방(南方)에서 많이 보거니와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렇게 원초(原初)부터 전승(傳承)으로 생각된다.

정약용(丁若鏞)의 「필언각비권삼(疋言覺非卷三)」에 「禊者潔也 鄭俗於上己采蘭芷皎



除不祥謂之禊… 東人凡與衆會飲皆謂之禊… 鄉村釀錢者亦皆名禊耳… 」라고 제(禊)의 어의(語意)와 사회적(社會的)인 고찰(考察)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목욕(沐浴)」과 「제의(祭儀)」와 「회음(會飲)」 그리고 「각전(釀錢)」은 상호간(相互間)에 깊은 관련(關連)을 갖는다. 「제귀신군취가무음주(祭鬼神郡聚歌舞飲酒)」라고 위지동이전(魏志東夷傳)에도 있듯이, 그것은 어느 나라나 유사(類似)한 일이기도 하겠으나 유구(悠久)한 전승(傳承)이다. 물론(勿論) 이 김알지(金闕智)에 대한 제의(祭儀)에서도 유사(類似)한 제차(祭次) 주변(周邊)의 행사(行事)가 이 제의(祭儀) 나름으로 있었을 것을 상상(想像)해야겠거니와 참고(參考)로 대포리에(大浦里例)를 하나 소개(紹介)하기로 한다.

대포리(大浦里)에서는 최(崔), 하(河), 양(梁) 삼씨(三氏) 골맥이집 자손(子孫)중에서 40세(歲) 이상(以上) 청정자(淸淨者) 1명(名)이 제관(祭官)으로 선정(選定)되면 그는 제전(祭前) 7일간(日刊) 목욕재계(沐浴齋戒)한다. 그리고 계명성(鷄鳴聲)을 전후(前後)에서 1, 2동(洞) 제당(祭堂)에서 제사(祭祀)를 지내고 익조(翌朝)에 회동(會同) 음복(飲福)을 하는데 그 제비(祭費)를 위해서 「제향계(祭享稷)」를 갖고 있다. 이 계원(稷員)은 30명(名), 최(崔), 하(河), 양(梁) 삼성(三姓) 위주(爲主)고 후(後)에 타성(他姓)받이도 참여(參與)해서 대소가(大小家) 형제간(兄弟間)에서는 본가(本家)서만 출자(出資)하고 옛 그 수합금(收合金)으로 현재(現在)도 밭이 오백평(五百坪) 확보(確保)된 것이 있다고 한다. 제비(祭費)는 이 수입(收入)에 「어촌계(漁村稷)」에서의 보조(補助), 어업조합(漁業組合)에서 술말개나 기부(寄附)해 주는 것들로 치러나간다고 한다<sup>6</sup>.

그러나 이러한 비용(費用)들로는 돈이 많이 드는 별신(別神)굿은 해나가기 어려워서 5년(年), 10년(年)만에 동제(洞祭)에 연결(連結)되던 별신(別神)굿은 이제 대부분(大部分) 소멸(消滅)되어 버렸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동내(洞內)의 회의(會議)가 개최(開催)되는 것이 또한 지금(至今)도 흔히 보이는 바이니 일례(一例)로 안동군(安東郡) 풍천면(豐川面) 광덕리(廣德里)에서는 제일(祭日) 다음날인 정월십육일(正月十六日) 낮에 동민전체회의(洞民全體會議)를 여는데 이것을 「대동회(大同會)」라고 한다. 내용(內容)은 동제사(洞祭祀)에 관(關)한 문제(問題), 동내재산(洞內財產) 운영문제(運營問題), 도선장관계(渡船場關係)(동내(洞內) 호당(戶當) 연일두(年一斗)를 걷고, 사공(沙工)을 선정(選定)) 송계(松稷)(동내(洞內) 산(山) 140정보(町步)의 산림운영문제(山林運營問題)) 기타(其他)들이라고 하며, 이 동내(洞內)는 예외(例外)로 전(前)부터 제후(祭後)의 유흥(遊興)은 없었다고 한다<sup>7</sup>.

영덕군(盈德郡) 영덕면(盈德面) 화개리(花開里)의 경우는 15일(日)에 전동민(全洞民)이 회음(會飲)하고, 동재산운영(洞財產運營) 품값사정(査定) 향헌(鄉憲) 동리사업(洞里事業) 도벌방지책(盜伐防止策) 혼장례논의(婚葬禮論議) 등이 있고 다음에 젊은패들의 유흥(遊興)이 있다고 한다<sup>8</sup>.

이러한 동제후(洞祭後)의 회의(會議)는, 이것을 가지고 원초(原初) 부락국가(部落國家)들의 일치(一致)되어 있던 「제정(祭政)」의 상황(狀況)을 유추(類推)하는 자료(資料)로 삼을 만 하다. 실제(實際)로 이러한 원초상황(原初狀況)을 방불(髣髴)케 하는 기록(記錄)이 유사(遺事) 혁거세조(赫居世條)에도 보인다. 「三月朔 六部祖各率子弟 俱會於闕川岸上 議曰 我輩上無君主臨理蒸民 民皆放逸 自從所欲 盍有德人 爲之君主 立邦說都乎」

## 五. 결언(結言)

註: 6. 河中淸翁(60歲) 談

註: 7. 柳道甲氏(男 59歲, 同洞所在信望中學校長) 談

註: 8. 朴允煥氏(盈德郡內務課勤務, 男 30餘歲)談

신라(新羅)의 시조신화(始祖神話)들은 고구려(高句麗)의 고주몽신화(高朱蒙神話)처럼 호장(豪壯)한 장편설화(長篇說話)를 이루지 못하고 소박(素朴)하게 신앙(信仰)을 반영(反映)하고 있다. 같은 신앙(信仰)의 반영(反映)이라도 그것은 또 한 제주도(濟州道)의 삼성시조신화(三姓始祖神話)처럼 제의(祭儀)에서의 가창(歌唱)되는 부분(部分)의 반영(反映)이 아니라 행위(行爲)되는 부분(部分)이 반영(反映)된 신화(神話)이다. 행위(行爲)되는 부분(部分)도 가락국(駕洛國)의 김수로왕신화(金首露王神話)는 제의(祭儀)속의 행위절차(行爲節次)를 많이 반영(反映)하고 있는데 신라(新羅) 시조(始祖) 신화(神話)들은 지금(至今)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제당(祭堂), 단지 계육(稷浴), 등 중요(重要) 형태(形態)들과 그 형태(形態)들에 대한 신앙심(信仰心意)의 반영(反映)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 잡다(雜多)한 신앙(信仰)들이 적절(適切)히 안배(按配)되어서 혁거세신화(赫居世神話)도 김알지신화(金闕智神話)도 또 여타 신화(神話)들도 형성(形成)하고 있다. 그 중(中)에서 혁거세신화(赫居世神話)는 난생요소(卵生要素), 마숭배(馬崇拜) 등(等) 전반적(全般的) 각도(角度)에서의 고찰(考察)을 요(要)하는 부분(部分)들이 보다 많고, 김알지신화(金闕智神話)는 민속적(民俗的)인 신앙(信仰)의 반영(反映)이라는 각도(角度)에서의 고찰(考察)을 요(要)하는 면(面)이 더 많다. 그러나 양자(兩者)는 서로 넘나드는 면(面)이 많아서 완전(完全) 분리(分離)해서 고찰(考察)을 하면 이중(二重)으로 언급(言及)될 부분(部分)이 많겠기 다음에 고찰(考察)될 박혁거세신화(朴赫居世神話)와의 연결(連結)로서 기일(其一)로 먼저 그 일부(一部)가 여기 제시(提示)되는 셈이다.

고주몽(高朱蒙), 박혁거세(朴赫居世), 석탈해(昔脫解), 김수로(金首露)들의 신화(神話)는 그 문헌기록(文獻記錄)들이 보이는 바와 같이 분명(分明)한 난생신화(卵生神話)요, 김알지신화(金闕智神話)도 지금(至今)까지 난생(卵生)의 변화형(變化形)으로 간주(看做)되어 같이 5개(個)의 난생신화(卵生神話)로 취급(取扱)되어 온 실정(實情)이겠다. 아닌 게 아니라 박혁거세신화(朴赫居世神話)에서와 같이 그 탄생유아(誕生幼兒)에 「알지(闕智)」라는 어휘(語彙)가 붙는 점(點)에서 관련성(關聯性)은 가지나, 그러나 지금(至今)까지 살펴온 대로 그 「황금궤(黃金櫃)」를 「시조단지」의 신화적표현(神話的表現)으로 본다면 이는 어디까지나 민간신앙(民間信仰)의 반영(反映)이요, 그것도 부락제(部落祭)나 시조단지의 그 반영실제(反映實際)가 어디까지나 영남지역특유(嶺南地域特有)의 민간신앙(民間信仰)을 반영(反映)한 신화(神話)라는 점(點)에서 끝까지 영남지역(嶺南地域)의 민간신앙(民間信仰)의 조사(調査)와 그 대비(對比)에서 세부적(細部的)인 양상(樣相)의 해석(解釋) 파악(把握)이 추구(追求)되어야 할 성질(性質)의 것이었다.